25

말기 암환자에서 진정제 사용 실태 조사

안미홍, 염창환*, 이혜리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,
*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

연구배경: 말기 암환자에게 있어서 암 치료 이상으로 증상조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부는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. 이 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 진정제이다. 그러나 말기 암환자에서 진정제 사용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본 저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 증상조절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정제를 사용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.

연구방법: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가정의학과에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말기 암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이 된 환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자료, 임상증상, 진정제 사용과 이유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빈도를 보았다.

연구결과: 156명의 암 환자 중 남자가 81명(59.1%), 여자가 75명(48.1%)이며, 평균 연령은 64.6±13.3세이다. 암의 종류는 위암이 36명(23.1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이 폐암 27명(17.8%), 대장암 19명(12.2%) 순이었다. 임상 증상은 통증, 오심과 구토, 호흡곤란 순이었다. 진정제를 사용한 환자가 55명(35.3%)이고, 그중 로라제팜이 37명(67.3%)으로 제일 많았고, 다음이 할로페리돌 21명(38.2%), 다이아제팜 18명(32.7%)순이었다. 진정제를 사용한 이유를 보면 수면장애가 20명(36.4%), 섬망이 20명(36.4%), 통증이 9명(16.4%), 호흡곤란이 5명(9.0%), 오심과 구토가 1명(1.8%)순이었다.

결론: 말기 암 환자 중 35.3%에서 진정제를 사용하였지만 대부분 수면장애와 섬망에 국한되었고, 가장 많이 호소하는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에는 사용이 매우 적었다.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진정제 사용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.

중심단어: 말기 암 환자, 진정제, 통증, 호흡곤란, 섬망